

세계 셰프 사로잡은 남도 미식...전남, 글로벌 식재료 시장 공략

프랑스 명장요리사협회 세계총회 참여...전북·김·전통장 소개 200여 셰프 전남 미식 팸투어...관광·식품산업 연계 확장 기대

남도 미식과 식재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 앞에 오르며 전남이 글로벌 미식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서울 엠베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세계총회'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전남 식재료와 남도 미식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번 총회는 20개국 550여명의 요리사와 미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의 국가에서 열리는 세계 미식계 주요 이벤트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관계자와 주한 프랑스 대사, 국내의 미식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남도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대한민국 식품명인 기수도 명인이 참여해 전통 식문화와 발효 기술을 소개하며 현지 셰프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남도의 장류와 사찰음식은 건강성과 깊은 맛을 동시에 갖춘 미식 자원으로 주목받았다는 평가다. 갈라디너에서는 프랑스 미식 전문가

마르크 투탱 셰프가 전남 전북과 김을 활용한 프렌치 요리를 선보이며 남도 식재료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통 식재료를 서양 요리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식재료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열린 고급 식자재 선발대회에서는 협회 소속 셰프들이 맛과 품질, 혁신성, 유럽 시장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담양 기수도 명인의 전통 발효 장류와 전남 청년 창업가들의 식품이 함께 소개되며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단순 홍보를 넘어 수출과 관광을 연계한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다. 총회에 참가한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소속 셰프 20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남을 방문해 미식 팸



전남도는 최근 서울 엠베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세계총회'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전남 식재료와 남도 미식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투어를 진행할 예정으로, 남도 식문화와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세계 정

상급 셰프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남도 미식의 가치를 알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팸투어를 통해 전남 식재료와 관광을

결합한 글로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과학기술원, '텍스코어' 3기 주관기관 선정

5년간 75억원 규모 호남권 연구실 창업 지원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성과 시장 연결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TeX-Corps)' 3기 실험실창업혁신단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GIST는 이번 선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5억원(연 15억원 규모)을 지원받아 호남권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텍스코어(TeX-Corps)는 'Tech exploration-Corps'의 약자로, 연구성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단계별 창업 탐색 프로그램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축적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발굴(Customer Discovery), 창업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I-Corps'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GIST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을 운영하며 매년 약 20개 내외의 창업탐색팀을 선발, 시장 검증 중심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연구실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반 학습도 우미 서비스를 개발한 ㈜에이아이카데미를 비롯해, 라이다(LiDAR) 센서 기술로 2024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에스오에스랩,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 비행선 기반 통신 서비스를 개발 중인 ㈜이카루스 등 기술 창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GIST는 3기 사업을 통해 호남권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 등 예비 창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3기 실험실창업혁신단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참석자들이 기초교육 후 기념촬영 모습.

업팀을 대상으로 시장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멘토링 △팀당 약 4000만원 규모의 창업탐색비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시장 검증 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인찬 GIST 과학기술혁신사업단장은 "이번 선정은 그간 축적한 창업 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창업동아리,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술 기반 창업 문화 확산과 예비 창업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지난 17일 광주시 대학교육혁신센터와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는 시민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RISE센터-시민사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인재양성·취업·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광주시대학교육혁신센터(광주RISE센터)와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시민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시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산업·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통합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보현 광주RISE센터 센터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훈 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시민사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결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산업·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통합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보현 광주RISE센터 센터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훈 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시민사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여수시는 지난 17일 이순신광장과 여문 문화의 거리, 흥국사가 등 상가 밀집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3월 중점 실천의 날'을 운영했다.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물가안정 시민 참여 확산 시 전역서 시민·상인 참여...3월 중점 실천의 날' 운영

여수시는 지난 17일 이순신광장과 여문 문화의 거리, 흥국사가 등 상가 밀집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3월 중점 실천의 날'을 운영하며 물가안정 실천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하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문화와 친절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고 국제행사를 앞둔 여수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시민운동 실천본부와 자생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위생단체협의회 등 지역 상인단체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물가안정 동참과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시민운동은 시민과 상인들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UN기후주간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르네상스 시민운동을 통해 생활 속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규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물가안정과 친절 서비스 문화는 여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자발적 실천을 통해 국제행사를 앞둔 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군과 장흥우체국은 최근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장흥우체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협약체결...내달부터 추진

장흥군과 장흥우체국은 최근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필품 준비를 담당하고,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맡는다. 장흥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해 대상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부 확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은둔 청년,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

를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된다. 우체국 집배원이 매달 두 차례씩 총 18회에 걸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장흥군과 즉시 공유해 신속한 상담과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생필품을 전달하던 중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해 즉시 대응함으로써 응급 상황을 예방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격려를 받은 바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



광주도시공사는 훈련 시설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 장애인 탁구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공간 제공한다.

광주도시공사, 장애인 탁구단에 훈련 장소 제공 전용시설 이전에 따른 훈련공백 해소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훈련 시설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 장애인 탁구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며, 전용시설 이전에 따른 훈련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승남 사장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기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훈련 시설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 장애인 탁구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며, 전용시설 이전에 따른 훈련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승남 사장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기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